

마이스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전개

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인천 송도컨벤시아서 열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참가 공동홍보관 운영

전주시가 마이스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집중 홍보전에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23'에 참가해 전북도, 전북마이스뷰로와 공동홍보관을 운영했다.



전주시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23'에 참가해 전북도, 전북마이스뷰로와 공동홍보관을 운영했다.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이스 박람회 중 하나인 이번 박람회에서 전주시 마이스 인프라 및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등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인천시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한 이번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는 국내 협회·학회, 마이스협회 회원사, 각종 관광청 및 대사관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마이스 비즈니스 및 기업 홍보, 네트

워크 구축 등이 이뤄졌다.

특히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외에서 마이스 행사를 직접 주최하는 협회와 학회 등 주최자와의 1:1 상담을 실시하는 등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전을 펼쳤다.

또한 엑스포 참가자들의 홍보부스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전주시를 배경으로 한 즉석 캐릭터처 등의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전주시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시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마이스 인프라를 활용해 크고 작은 마이스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전주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지난 16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1층 이웃사촌방에 발달장애인 앙상블 연주단과 아이레 앙상블 연주단이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했다.

장애인·비장애인이 아름다운 하모니

전주시, 발달장애인 앙상블 연주단·아이레 앙상블 연주단 공연

전주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졌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1층 이웃사촌방에 발달장애인 앙상블 연주단과 아이레 앙상블 연주단이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전주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구성된 발달장애인 앙상블 연주단원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아이레 앙상블 연주단이 함께하는 소통의 무대로 꾸며졌다.

앙상블 연주단은 이번 연주회에

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랑의 서약 △캐리비안의 해적 OST 등 총 14곡을 연주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 복지일자리 수행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느루걸음(대표 고영미)은 매일 정기연주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고,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왔다.

고영미 사회적협동조합 느루걸음 대표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무대에 설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가동

상황 관리·도로 제설·취약계층 보호대책 등 시민 재산·인명피해 예방 위해 철저 대응

전주시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기상적인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제설 개선방안 등을 담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울겨울 자연 재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CCTV 영상을 활용한 현상 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공유 △제설 전진기지 구축, 제설 장비·자재 사전확보 등 도로 제설 대책 △한파 취약계층 안전 관리 및 지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운영 △수도시설 등 방재대책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재난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상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는 전주기상지침의 기상예보와 재난감시용 CCTV 및 CCTV관제센터의 영상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터널 진출입로와 교량 등 한파와 폭설시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설취약구간으로 정하고, 예찰 및 사전 제설에 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완산·덕진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 도로유형별 도로제설대책을 수립해 추진하

기로 했다.

동시에 농·축·수산시설 등에 대한 재해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계량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최우선 응급복구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독거노인 등 한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시민홍보 강화를 위해 재난문자 표준안을 마련해 대중교통과 옥외전광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신속한 대시민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배회온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전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해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완산구 예비군 지휘관 간담회 가져

우범기 전주시장이 '우리동네 안보 지킴이' 역할을 수행 중인 완산구 예비군 지휘관들과 만나 위로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17일 사회혁신센터 컨퍼런스룸에서 김희태 지역대장을 비롯한 완산구 지역 예비군 지휘관 17명을 초청해 군·관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그동안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피해 현장에서 복구를 지원하고, 국제 행사시 테러 대비 활동에 솔선수범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준 예비군 지역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우 시장은 시정 발전과 지역 안보 확립을 위해 민선8기 시장 목표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예비군 지휘관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대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군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예비군은 유사시 국가 방위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고 평시에도 행정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 전주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앞으로 시정 발전과 지역 안보 확립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완산구 예비군 지역대는 재해 복구 현장뿐 아니라 △화재진압 △김장 봉사 △코로나19 백신 보관 의료기관 경계 및 임시 선별진료소 지원 △주민자치센터 민원 업무 방해 제재 활동 등 지역 재난 현장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서 봉사 정신을 발휘해 왔다.

/김옥기 기자

어린이집 연합회, '전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

전라북도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신은옥)가 주관한 '2023년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화합, 소통, 공감, 존중을 나누는 전북 보육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도내 14개 시·군 보육 교직원 2000여명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의 중요성과 보육 교직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기념식으로 문을 열었다.

기념식은 오프닝 공연과 준비위원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보육 유공자 표창 △환영사 △격려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순서로 보육교직원의 힐링을 위한 콘서트 등도 마련됐다.

보육교직원들은 축제 한마당이 끝난 이후에는 '전주의 맛과 멋'을 주제로 각 지방별로 맛집과 한우마을, 도서관 등 문화 관광을 체험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 보육인의 최대 행사인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전주에서 개최하게 돼 영광이며, 전북의 미래인 아동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번 대회가 도내 보육교직원들이 화합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 갖고 안보태세 확립 다짐

전주시는 지난 17일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군인, 경찰, 소방 등 통합방위 관련 주요 기관장과 단체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4분기 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통합방위 협의회에서는 올해 전주시가 실시한 읍지연습과 화랑훈련, 통합방위태세 강화훈련 등 각종 추진사항의 결과 보고 및 내년도 통합방위태세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참석 기관장과 단체장들은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공고히 하고, 긴밀

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통합방위태세의 발전방안과 협조 사항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평소 각종 재난방지와 지역 안보를 위해 불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는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히며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관·군·경의 협조체계를 굳건히 하고,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건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번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